

# 유통·화장품 한 주 딱라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 RA 김진영 6915-5655 [jykim5316@ibks.com]

##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 기재부 "면세점 담배 할인 OK"... 면세점 업계 "안도" (17.07.28 뉴데일리경제)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점은 담배 광고·할인 규제에서 제외됨.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공항 면세점의 경우 세계적인 공항들과 경쟁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시장을 국내로 한정 지어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면세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담배 할인 규제도 없다는 것. 관세청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2013년 639억원, 2014년 744억원, 2015년 768억원의 담배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전체 매출의 2~4% 수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한 보루 가격은 고가이지만 면세점 전체 매출의 5~6% 정도를 차지함. 공항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담배 비중은 최대 10%에 육박함. 할인과 프로모션 때문. 특히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모객효과도 높기 때문에 담배 할인 규제는 면세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 하지만 기재부의 이번 결정으로 담배 할인 규제는 사실상 설에 그칠 확률이 높아짐.

### 사드發 中 후폭풍, 아모레 "울고"... LG생건 "웃고" (17.07.28 컨슈머타임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LG생활건강의 상반기 실적이 엇갈림.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상반기 매출 3조2683억원, 영업이익 50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 30.2% 각각 감소함. 장기화된 내수 소비 침체와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아모레 실적 급감의 원인. 아모레의 주요 브랜드 매출이 면세점 채널에 의존, 손실이 더 커졌다는 게 업계 분석. 실제 아모레 고급브랜드의 실적 감소보다 20~30대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의 매출이 더욱 큰 폭으로 급락함. 반면 음료, 생활용품, 화장품 등 3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LG생활건강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분기 매출에서도 아모레를 추월함. LG생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7.3% 증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1.9%, 9% 증가. LG생건이 내수 침체와 사드 보복에서도 고급 화장품브랜드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 게 주효했다고 LG생건은 중국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6% 급감했지만 중국 현지의 고급화장품 매출이 상승하면서 내수 하락을 상쇄함. 국내 백화점, 방문판매 매출도 성장도 여기에 힘을 보탬. 여기에 생활용품 사업과 음료 사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고성장세를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

### 상반기 편의점·온라인 매출 쑥.. 대형마트 백화점 성장 멈춰 (17.07.30 이데일리)

30일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매출은 전년보다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판매와 판매중개가 각각 25.1%, 8.8% 매출이 증가. 부문별로는 식품이 29.1%, 패션·의류부문이 28.4% 성장.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편의점 매출도 작년보다 11.4% 증가. 도시락 등 식품부문 매출이 18%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끔. 반면 대형마트는 성장을 멈췄으며 백화점은 0.9% 증가하는데 그침. 대형마트는 식품부문에서 4%의 성장을 했지만 청소용품, 의류 등 나머지 상품군의 매출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비슷한 매출수준을 유지. 백화점은 가정용품부문(11.4%)의 매출이 성장했지만 의류부문(-0.4%)에서 매출이 하락하면서 전체 매출이 0.9% 증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유통업체 전체의 상반기 매출은 작년보다 6.0% 증가. 6월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각각 4.2%, 13.6%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7.2% 확대됨. 역시 편의점과 온라인 판매가 10.9%, 33.0% 성장함.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율은 각각 1.3%, 2.3%로 집계됨.

### 홈쇼핑, TV 밖으로 나오니 "잘나가네" (17.07.28 매일경제)

홈쇼핑 업체들의 탈(脫) TV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현대홈쇼핑은 현대백화점의 아웃렛 채널을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이 "PLUS#(플러스샵)"의 매장 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의 매장을 운영 중. 플러스샵의 매출 또한 목표 매출보다 20% 초과 달성 중. 최근 문을 연 현대시티몰 가든파라이브점은 오픈 한 달 만에 목표치의 두배인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림. 롯데홈쇼핑도 현장 체험과 구매가 가능한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샵"을 확대하는 중. 지난해부터 4개 점을 연이어 오픈함.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샵 4개 점의 월 평균 방문고객은 총 4만 명, 누적고객은 50만 명. 이전점과 파주점의 매출도 오픈 초기인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롯데홈쇼핑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도 스튜디오샵을 확장하고 있음. TV홈쇼핑 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강화하는 이유는 판매망을 넓혀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함임. 홈쇼핑 주 고객은 중장년층이지만 오프라인 매장 이용자는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해 미래 고객을 끌어들이기에 유리함. TV홈쇼핑 업체들이 자체브랜드(PB) 및 단독브랜드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 상품의 판로를 넓히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오프라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 또한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물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옴니채널 구축을 위한 포석이기도.

**“구원투수” 이해선 코웨이 대표, 취임 반년 성적표는? (17.07.27 뉴스토마토)**

지난해 이물질 검출 사태로 흥역을 겪은 코웨이가 정상 궤도를 되찾고 있음. 지난해 취임한 이해선 신임 대표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 얼음정수기 리콜비용으로 지난해 2분기 실적은 악화되었으나, 고객 보상 프로모션 등이 종료되며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분석. 실적 정상화의 주역은 이해선 대표. 손대는 모든 상품이 히트상품이 되는 “마케팅의 대가”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코웨이의 체질 개선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음. 취임하자마자 “코웨이 트러스트”를 경영지침으로 매주 열리는 무한책임 위원회 회의, 품질검증 부서의 통폐합을 통한 품질 향상 등으로 고객 신뢰회복을 꾀하고 있음. 코웨이가 야심차게 다시 내놓은 AIS(아이스) 정수기도 그의 작품. 제품 개발, 소비자 체험 프로모션 등에도 직접 참가했음. 뿐만 아니라 AI와 IoT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서비스도 계획 중.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물질 검출 사태 당시 10만에 달하는 계정 중에서 대다수(약 80%에 달하는 계정)가 이탈이 아닌 신제품으로의 교환이었다는 점을 보아도 코웨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일정수준 이상”이라며 “방문판매는 일대일 관계가 기본으로, 견고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힘.

**인스티튜트 카리테, 이마트 “부츠” 명동점 입점 (17.07.28 컨슈머타임스)**

시어버터 브랜드 “인스티튜트 카리테”가 H&B 스토어인 이마트 부츠(Boots) 명동점에도 입점했다고 28일 밝힘. 지난 5월 부츠 스타필드 하남점에 입점한 데 이어 H&B스토어 유통망을 확대하게 된 것. 인스티튜트 카리테는 보습력이 뛰어난 시어버터를 베이스로 페이스, 바디 등 다양한 제품 라인을 프랑스, 미국 등 전세계 100여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인스티튜트 카리테가 새롭게 입점하는 부츠 명동점은 약 380평 규모로 국내 H&B 스토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함.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대해 글로벌 프리미엄 시어버터 바디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업종코멘트(7/31-8/4)**

**화장품:**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결과 LG생활건강은 화장품의 부진에도 음료의 원가개선으로 전사 수익성 개선을 시현. 아모레퍼 시픽은 국내의 주요 채널에서 중국인 수요 감소 영향을 반영. 또한 중장기 투자와 인력 확충으로 수익성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유통업:** 롯데쇼핑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어닝쇼크를 나타냄. 롯데하이마트의 어닝서프라이즈를 중심으로 슈퍼, 편의점, 홈쇼핑의 턴어라운드 및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내 사드 영향에 직접적인 적자를 반영했기 때문. 업종 모멘텀 축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표. 주간 Index 지표와 시가총액 증감률

지수	종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400.99	-2.00	롯데쇼핑	1.41	-2.38	-6.66	GS리테일	1.57	-1.92	-6.27
KOSDAQ	652.95	-3.50	현대백화점	5.61	5.61	1.80	코웨이	-0.90	2.15	-3.77
유통업	484.45	0.31	신세계	7.33	2.11	1.26	아모레퍼시픽	-0.85	-1.19	-6.43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5.71	2.46	8.93	LG생활건강	7.06	8.33	-0.60
KRW/USD	1,112.50	-1.10	롯데하이마트	1.53	-3.20	-7.12	코스맥스	3.81	4.81	-9.17
KRW/JPY	1,000.54	-0.48	CJ오쇼핑	3.00	2.13	-1.03	한국콜마	4.83	6.19	-1.86
KRW/CNY	165.28	-0.64	현대홈쇼핑	5.30	2.96	4.91	토니모리	1.07	1.07	-8.70
			엔에스쇼핑	2.42	1.20	-0.29	잇츠스킨	0.13	2.85	-11.97
			GS홈쇼핑	3.30	2.76	1.65	클리오	0.00	-4.68	-18.09
			BGF리테일	-1.06	-3.51	-10.00	코스메카코리아	1.77	1.44	-11.08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표. 글로벌 피어 주가 상승/하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1.8	0.3	-2.5	LVMH	-1.5	-1.7	-4.7	월마트	4.8	4.5	4.3
로레알	0.1	-1.7	-4.8	ULTA	-1.6	-4.7	-12.6	테스코	0.3	1.3	2.3
에이본프로덕츠	3.0	2.7	-2.3	노드스트롬	3.2	4.5	2.7	타겟	2.2	5.3	7.7
상해지화	1.4	-0.2	-1.7	맥스&스펜서	-1.0	0.0	-4.6	까르푸	-1.1	-4.6	-7.4
크리스찬디올	-0.8	3.5	-5.2	다카시마야	-0.5	-0.7	-6.4	텐센트	2.8	7.2	8.0
P&G	2.3	4.1	2.6	이온 물	-2.7	-1.1	-5.4	알리바바	1.5	1.5	7.1
고세	2.3	4.1	0.0	세븐&홀딩스	1.3	-0.7	-4.5				
에스티로더	1.6	4.4	2.8	아미존	2.0	4.4	5.6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USD)	35.16	211.88	3.74	4.57	283.56	90.68	111.72	99.53	252.84	249.43
시가총액(백만USD)	14,063	118,658	1,645	3,079	51,190	231,924	6,770	36,610	128,361	15,473
매출액 (백만USD)	2015 7,110 2016 7,840 2017 8,509 2018 8,940	28,036 28,597 31,814 32,959	6,161 5,718 5,784 5,904	922 793 774 855	42,195 42,144 48,789 53,062	70,749 65,299 65,058 66,896	1,900 2,029 2,468 2,514	10,780 11,262 11,777 12,572	39,587 41,617 48,136 51,311	3,241 3,924 4,855 5,907
영업이익 (백만USD)	2015 252 2016 339 2017 461 2018 589	4,724 4,385 5,678 6,010	165 322 382 439	118 28 70 91	7,218 7,321 9,235 10,020	11,049 13,441 13,955 14,846	207 289 362 383	1,606 1,610 1,839 2,033	7,101 7,638 9,427 10,426	410 506 655 811
순이익 (백만USD)	2015 308 2016 296 2017 278 2018 363	3,660 3,438 4,530 4,830	-1,149 -108 106 177	352 33 62 79	2,860 1,742 2,549 2,796	7,036 10,508 15,326 11,086	110 156 200 220	1,089 1,115 1,264 1,389	3,966 4,406 5,623 6,259	257 320 410 517
PER (배)	2015 25.3 2016 36.8 2017 50.8 2018 39.0	26.2 31.2 26.1 24.7	94.3 124.4 18.0 10.4	11.9 84.7 49.4 39.2	13.2 16.5 20.3 18.1	19.2 22.5 22.2 21.9	31.4 33.5 26.5 28.3	30.2 28.0 29.2 26.4	20.4 22.9 22.5 20.4	33.3 36.1 41.0 30.0
ROE (%)	2015 9.3 2016 8.2 2017 7.6 2018 9.4	15.1 12.9 15.2 15.0	N/A N/A N/A N/A	46.4 3.9 7.5 8.8	21.4 14.7 18.3 17.0	10.5 17.5 27.6 19.0	9.1 13.0 13.9 14.9	29.0 30.9 33.5 42.8	15.5 15.7 17.2 17.3	22.9 23.8 27.4 23.3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P&G, 고세, ULTA는 2018년 수치만 추정치.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 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 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깃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현재가(USD)	48.97	4.25	9.08	18.86	40.45	1,046.00	79.78	2.30	56.05	24.30	39.13	154.15
시가총액(백만USD)	8,132	6,910	3,229	4,289	35,860	502,080	240,497	18,823	30,923	18,821	371,621	394,802
매출액 (백만USD)	2015 13,506 2016 14,437 2017 14,757 2018 15,250	16,644 15,914 13,882 13,998	7,887 7,177 7,962 8,219	1,889 1,904 2,496 2,622	46,289 40,548 42,978 54,757	107,006 135,987 166,986 203,550	485,651 482,130 485,873 494,823	92,606 81,684 74,106 74,571	72,618 73,785 69,495 70,015	88,145 87,844 93,538 96,284	16,371 22,880 32,774 42,816	12,302 15,912 23,531 34,320
영업이익 (백만USD)	2015 1,323 2016 1,101 2017 805 2018 969	1,132 881 331 871	297 273 314 309	388 364 416 448	3,181 2,920 3,372 3,510	2,233 4,186 5,026 8,473	27,147 24,105 22,764 22,492	-9,354 1,624 1,348 1,942	4,535 5,530 4,969 4,196	2,429 2,190 2,949 3,189	6,052 7,971 10,849 13,831	3,735 4,578 7,145 10,685
순이익 (백만USD)	2015 720 2016 600 2017 354 2018 502	785 613 153 600	209 198 193 199	227 204 264 263	1,603 1,334 895 1,719	596 2,371 6,138 8,932	16,363 14,694 13,643 13,167	-9,339 209 -53 1,065	-1,636 3,363 2,737 2,403	1,088 826 1,345 1,514	4,585 6,188 8,831 11,444	3,917 11,242 6,493 11,755
PER (배)	2015 20.3 2016 14.6 2017 13.6 2018 16.3	17.8 16.4 46.8 11.6	16.9 13.3 16.9 15.8	21.5 14.8 13.8 16.1	23.4 24.7 40.2 20.9	537.8 152.7 90.5 63.0	17.0 15.1 15.4 18.3	N/A 56.8 234.6 17.6	17.4 15.4 12.7 12.8	19.7 21.6 13.5 12.0	41.2 38.7 42.1 32.3	66.5 55.3 47.1 33.5
ROE (%)	2015 31.9 2016 36.2 2017 40.7 2018 59.7	16.5 12.2 3.5 14.0	5.9 6.0 5.1 5.4	7.9 7.4 8.3 8.1	7.9 6.9 4.1 8.0	4.9 14.5 17.7 22.1	20.8 18.1 17.2 17.1	-52.7 1.8 -0.5 11.4	-10.8 25.0 22.9 21.6	10.4 7.4 10.2 10.6	28.8 27.9 28.3 28.1	27.5 39.3 17.5 19.6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아마존, 까르푸, 텐센트 외 종목은 2018년 수치만 추정치. 자료: Bloomberg